

북한주민이 존경하는 민족사의 인물

이교덕 (통일연구원)

◁ 목 차 ▷

- I. 서 론
- II. 삼국시대 및 고려시대의 인물
- III. 조선시대의 인물
- IV. 근세의 인물
- V. 남북한간 인식 차이의 원인
- VI. 결 론

I. 서 론

최근 일각에서는 안중근의사 순국 90주년을 맞아 안의사 유해를 남북한이 공동 발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안중근의사 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북한도 오래전부터 중국측과 협의하며 안의사 유해발굴작업을 추진해 왔고, 안의사는 남북이 모두 추앙하는 분인 만큼 남북이 함께 유해발굴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한다.¹⁾

분단 50여 년간 각 분야에서 남북한간에 축적된 이질성을 감안하면 남북한 주민이 함께 존경하는 민족사의 인물이 있다는 것은 무척 다행한 일

1) 「조선일보」, 2000. 3. 17.

이다. 남북한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존경하는 민족의 스승이 존재한다는 것은 남북한 주민통합의 구심점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안중근 의사 이외 남북한 주민이 공통으로 추앙하는 민족의 師表를 찾아내는 것은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의미있는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남과 북이 같은 민족, 공동체를 강조하면서도 강하게 서로를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이 모두 존경하는 사표의 존재는 남북한이 체제를 초월하여 서로를 열거하는 실마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의식의 회복은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성 극복과 사회심리적 차원의 통합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성은 주로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동질성 회복과 사회심리적 통합을 위해서는 이념적 성격이 비교적 적은 영역에서 공동체의식을 육성하고 공통의 인식을 확대해가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데올로기를 비롯한 정치의식을 급속히 동질화하려는 경우 남북한 주민간 심리적·문화적 갈등이 첨예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남북한 주민이 함께 추앙하는 역사적 인물을 찾아내어 그를 기념하는 사업을 남북한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심리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민족 구성원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이 과연 누구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남북한 주민의 이질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존경은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되는 분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여기에서도 큰 상이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남북한 주민의 의식과 가치관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주민이 존경하는 인물은 정부의 <공보처>가 1996년 8월 25일에서 9월20일 사이에 일반인 1,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²⁾ 이 조사에 의하면 1,522명 가운데 64.4%(981명)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반응을 보여, ‘없다’는 응답자 29.7%보

2) 공보처,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서울: 공보처, 1996). 조사한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추후의 조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사이에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 자료를 이용한다.

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이 있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존경하는 인물을 질문한 결과는 박정희(23.4%), 세종대왕(18.8%), 이순신(14.1%), 김구(10.0%), 안중근(4.3%), 유관순(3.0%), 신사임당(2.6%), 광개토대왕(2.4%), 안창호(2.0%), 이승만(1.7%), 이이(1.2%), 기타(16.2%)였다.

이 순위는 연령별, 성별, 직업별, 교육수준 등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³⁾ 배경변수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북한 주민의 인식과의 비교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한편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설문조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즉 역사적 인물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평가는 대체로 역사교육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북한 역사서 속의 인물평가를 분석했다. 주로 남한주민이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들에 관해 북한 역사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의식을 간접적으로 이해하려 한 것이다.⁴⁾

II. 삼국시대 및 고려시대의 인물

1. 광개토대왕, 을지문덕, 연개소문

광개토대왕은 잃어버린 고조선의 땅을 되찾거나 조국의 영토를 확장하여 민족의 기개를 드높인 인물로, 을지문덕·연개소문은 외적의 침략에 맞서 조국을 구한 '애국명장'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광개토대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영웅적 찬양은 보이지 않고 영토확대를 중심으로 한 치적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⁵⁾, 이

3) 예를 들면 20대는 박정희보다 세종대왕을 가장 존경하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김구를 이순신보다 더 존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유관순과 신사임당을 더 존경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보처,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자료편)」, pp. 327~329.

4) 민족사의 인물에 관한 북한주민의 의식과 역사서에서의 평가가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분석으로 얻어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5명의 귀순자들을 면접조사했다. 면접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V장을 참조.

는 그가 봉건군주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을지문덕은 수나라의 침입에 맞서 인민을 상황에 맞게 잘 조직하고 뛰어난 전략전술을 구사하여 조국을 위기에서 구출한 인물로 기술되고 있고⁶⁾ 연개소문은 봉건귀족으로서 무장정변을 일으켰지만 당시의 군주와 지배계층에 만연해 있던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과감히 당나라에 맞서 싸운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찬양되고 있다.⁷⁾

이와 같은 평가는 이들이 행한 반침략투쟁에서의 역할 때문인데, 북한은 반침략투쟁에서의 공헌을 매우 중시한다. 반침략투쟁에서의 공헌을 중시하는 것은 북한의 이른바 '주체적 반제투쟁'이라는 현재의 입장과 시각이 과거사에 투영된 때문일 뿐 아니라 역사교육을 통한 정치의식의 계발과 교양을 중시하는 데서 비롯된다.

또한 이들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북한이 삼국 가운데 고구려에 편향된 인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고구려사는 반침략투쟁의 역사이자 옛 영토 회복을 위한 노력의 역사로 묘사되는 동시에 역사상 가장 강대하고 주체적이며 사대주의가 없었던 역사로 서술되고 있다. 반면, 백제·신라사는 철저히 계급적 시각을 기초로 서술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신라사는 반민족의 역사로 간주된다.

고구려만이 자주적이고 애국적이며 선진국가였다는 치우친 역사인식 때문에 고구려 장군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3」(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pp. 135~147.

6) 재일 조총련의 역사교재로서 간행된 「조선력사강좌」는 을지문덕에 대해 “612년 수나라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출중한 지혜와 용맹을 떨쳐 인민들의 사랑받은 명장으로 오늘까지 전해오는 고구려장수”라고 소개하고 있다. 조희승, 「조선력사강좌」(동경: 조선청년사, 1993), p. 53. 본 논문에서는 북한 저서의 인용시 철자법을 원문대로 따른다.

7) 북한은 “연개소문이 일으킨 무장정변은 그것이 봉건지배층안에서 벌어진 정권쟁탈전이었던만큼 비록 지배계층의 계급적제한성을 극복할 수는 없었지만 당시 왕을 비롯한 부패한 통치배들이 당나라에 아부굴종하던 행위를 반대한 것으로 하여 고구려력사발전에서 긍정적인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당나라 침략자들과 맞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고구려국가의 강성을 위하여 맹렬한 활동을 벌리던 고구려의 명장 연개소문이 죽었다. 이것은 대내외정세가 어려운 시기에 훌륭한 지휘자를 잃은것으로서 고구려의 큰 손실이었다”고 평가한다. 「조선전사 3」, p. 263, 294.

2. 김춘추, 김유신

신라사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며 비판적이다. 이는 주로 7세기의 삼국통일과정에서 신라가 추진한 수·당과의 연합을 민족적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이같은 시각을 신라사 전체에 반영시킨 때문이다.

7세기 중엽에 신라봉건통치배들은 당나라침략자까지 끌어들여 국내에서 오래 동안 전쟁을 벌임으로써 나라의 발전을 가로 막았다.—남에게 의존하여 남의 힘을 빌어 자기 나라의 내부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그 덕에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것은 사대주의사상에 물젖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신라의 통치배들은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들의 계급적이익을 위하여 외적을 끌어들이고 그들과 힘을 합쳐 국내전쟁을 일으켰다. 이리하여 나라는 막대한 전쟁피해를 입게 되고 국토의 적지 않은 부분을 침략자들에게 빼앗김으로써 민족앞에 씻을 수 없는 엄중한 죄과를 저질렀다.8)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북한은 특히 신라통치계급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사대주의 사상을 비판하는 북한의 소위 '주체적 입장'에서 볼 때, 신라의 통치계급이 당나라를 끌어들여 같은 겨레의 나라인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사실은 반민족적 행위의 전형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신라의 3국통일을 인정하지 않으며 우리 역사상 최초의 통일왕조를 고려로 보고 있다. 고구려·백제가 멸망한 뒤 북쪽에는 고구려 유민이 발해를 건국하였으므로 신라는 국토 남부의 통합에 그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통일신라의 부정은 고조선-고구려-발해의 계승이 역사의 정통이고 고려가 최초의 통일왕조라는 인식논리의 필연적인 귀결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현 북한정권과도 무관하지 않은 역사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발해와 북한정권을 민족사의 정통으로 인식시키는 역사교육적 효과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신라의 통치계급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고 신라의 통일을 부정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김춘추와 김유신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

8)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통사(상)」,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p. 151.

라 증오의 표적이다.

김정일은 “신라통치배들이 령토팽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외래침략자들을 끌어들이 백제와 고구려를 반대하여 진행한 전쟁은 침략전쟁으로 보아야 하며 전쟁을 조직지휘한 김춘추, 김유신을 비롯한 신라통치배들도 전쟁의 성격에 따라 재평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한다.⁹⁾

이에 따라 북한의 역사서들은 김춘추에 대해 “사대주의가 골수에 사무친” 인물로서 “너절한 당나라행각”을 벌이고 “김유신과 결탁하여 당나라와 한 밀약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미친 듯이 날뛰었다”고 기술하고 있고¹⁰⁾ 김유신도 “젊어서부터 권세욕에 불탔던 야심가”로서 권모술수에 능했으며 “우리 역사에 큰 죄악을 남긴 반역자이고 사대주의자였다”¹¹⁾는 것이다. 이들의 사대주의 때문에 “신라는 조상대대로 쓰던 년호도 폐지하고 중국년호를 쓰기 시작하였고 관리들의 의복제도도 고유한 조선의 복을 없애고 당나라의 것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¹²⁾ 김춘추와 김유신에 대한 이런 평가는 ‘위화도 회군’을 했다 해서 이성계를 “사대주의적이고 투항주의적이며 나라를 반역하였다”고 평가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3. 강감찬

강감찬은 거란의 침략을 맞아 뛰어난 전술과 애국심으로 나라를 구한 명장으로 평가된다.

강감찬장군은 비록 량반출신이었지만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조국강토를 보위하려는 애국정신을 가지고 옹운 전략전술과 능숙한 지휘로 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하여 후세에까지 이름이 전하여지고있는 애국명장중의 한사람이다.¹³⁾

그러나 북한은 국난극복에 있어서도 뛰어난 한 개인의 지도력보다는 역

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력사상식」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8), p. 24.

10) 「조선력사강좌」, p. 81.

11) 「조선력사상식」, p. 151.

12) 「조선력사강좌」, pp. 82~85.

13) 「조선력사상식」, p. 136.

사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감찬을 영웅적으로 찬양하지는 않는다.

반거란전쟁에서 고려인민이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보다 먼저 인민대중이 열렬한 애국주의정신과 불굴의 기개를 발휘하여 용감하게 싸운데 있었다.¹⁴⁾

애국적인민들의 희생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서희, 강감찬을 비롯한 애국적인 장군들의 전략과 전술이 성과적으로 관철될 수 있었고 따라서 거란침략자들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길 수 있었다.¹⁵⁾

이러한 입장은 몽골침략에 대한 고려의 투쟁에 대한 기술에서도 견지된다.

몽골침략자를 반대하여 오래동안 진행된 고려인민의 투쟁은 가장 포악한 몽골 침략군의 침입으로부터 나라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정의의 조국방위전쟁이었다. 애국적인 고려인민은 그 이전 세기들과는 달리 국력이 약화된 이주 어려운 형편에서도 흉악한 봉건몽골군의 계속되는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를 끝까지 지켜 냈으며 불굴의 투쟁정신과 애국심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¹⁶⁾

따라서 북한은 외적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구한 민족사의 어느 뛰어난 명장도 인민들을 잘 조직·지휘한 업적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영웅시하지는 않는다.

Ⅲ. 조선시대의 인물

1. 세종대왕

북한의 역사서술에서 통치기구 및 제반제도에 관한 것은 다른 항목에 비

14)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6」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p. 151.

15) 「조선통사(상)」, p. 240.

16)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7」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p. 9.

해 상대적으로 간략히 처리된다. 또한 왕이나 귀족 등 통치계급에 의한 통치기구 및 제도의 정비와 착취와 억압의 강화과정으로 설명된다. 이는 북한이 통치기구 및 제도란 “근로인민을 압박·착취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변화의 상세한 과정을 추적하거나 논하는 것이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고 본 때문이다.¹⁷⁾

남한의 역사서는 기구 및 제도를 사회운영의 주요 장치로 이해하여 그것의 미묘한 변화과정과 그 변화를 주도한 인물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므로 남한 주민은 역사서를 통해 뛰어난 군주나 관료의 치적에 쉽게 접할 수 있으나, 북한 주민은 그렇지 못하며 세종대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에 대해서도 “리조 봉건 통치배들이 인민들을 봉건통치에 무조건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 배우기 쉬운 문자를 만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봉건통치배들은 인민들을 통치하고 봉건료리도덕으로 얽어매기 위하여 인민들이 글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표음문자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¹⁸⁾

세종은 자기들의 계급적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누구나 다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을 중요한 국가적사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이 사업을 밀고 나갔다.¹⁹⁾

더욱이 한글창제에서 세종대왕의 주도보다는 인민의 역할을 강조한다.

자기의 고유한 문자를 요구하는 우리 인민의 간절한 념원은 언어와 문자 발전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높은 성과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²⁰⁾

17) 전호태, “삼국시대에 대한 인식,” 안병순·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인식 I」 (서울: 한길사, 1990), p. 115.

18) 「조선통사(상)」, p. 396.

19)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8」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p. 324.

20) 「조선통사(상)」, p. 396~397.

이러한 역사적 인식을 습득한 북한 주민들은 세종대왕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안다 하더라도 높게 평가할 이유가 없다. 비교적 폭넓게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북한의 「력사사전」에도 세종대왕에 대한 언급이 없을 정도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세종대왕에 대한 북한의 종합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세종은 30여년간의 통치기간에 외래침략을 쳐부시고 고구려와 발해의 옛판도를 되찾는데서와 봉건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일정한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봉건국가의 국왕으로서 그가 한 모든 것은 결국 봉건통치를 공고화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태평성세>라고 하던 그의 통치시기에도 봉건적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자주성을 위한 농민폭동은 여러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것이다.²¹⁾

2. 이순신

북한의 소위 '주체사관'에 의하면 반침략투쟁은 민족의 자주성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므로 역사서술에서 민족은 항상 반침략투쟁의 주체로 설정되며, 그 결과 외세의 침략에 대한 거족적인 투쟁이 강조된다. 특히 봉건국가의 통치계급은 자기들끼리 내부싸움을 되풀이하면서 사치하고 안일한 생활에 빠져 국고를 탕진하고 국방력을 약화시켜 인민들의 반침략투쟁을 어렵게 만든 인물들로서 증오의 대상이다. 따라서 북한은 반침략투쟁에 관해서도 통치계급을 위주로 하거나 개인을 영웅시하는 서술을 지양하면서 외세의 침략에 대한 피지배층의 애국적 투쟁을 강조한다. 이 점은 임진왜란에 대한 기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리조봉건국가의 중앙집권과 국방력이 약화된 기회에 간악한 왜놈사무라이들이 1592년 대군을 일으켜 불의에 침입하였다. 이 때 일상적인 방비를 갖추지 않고 태평성세만 부르고있던 봉건통치배들은 왜적의 침공을 막아낼 수 없게 되자 왕을 데리고 도망쳐 나라와 인민을 원수들의 유린밑에 내맡기었다. 그러나 슬기롭

21) 「조선력사상식」, p. 191.

고 용감한 인민들은 나라의 운명을 무능한 봉건통치배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용감히 떨쳐나섰다.—조선인민은 잔인무도하고 흉악한 일본침략자들과의 7년간에 걸치는 임진조국전쟁에서 마침내 원수들을 조국땅에서 몰아내고 나라의 영예와 존엄을 빛내었다.²²⁾

북한은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보다 먼저 전쟁의 기본담당자인 애국적인 인민들과 군인들이 민족적 독립과 영예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용감하게 싸운데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순신과 같은 영웅들의 군사적 승리도 전적으로 애국적 인민과 군인들의 투쟁에 의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리순신, 광재우 등 애국명장들은 인민들의 높은 애국적열의와 반침략기세에 고무되면서 전투대오를 강화하고 전투준비를 튼튼히 갖추도록 하였으며 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적극적인 전투활동을 벌리었다. 그들은 애국적군인들과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대중의 지혜에 의거하여 적아간의 역량관계와 지형조건 등을 정확히 타산한 기초우에서 여러가지 전투형식들을 능숙히 적용하여 침략군에게 연속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²³⁾

같은 맥락에서 근대이전의 애국명장들에 대한 시대적·계급적 한계성이 강조된다. 즉 애국명장들은 봉건왕조나 봉건지배층을 위해 싸웠을 뿐이며 피지배계층을 위해 싸우지는 않았다고 비판되는데, 이는 이순신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리순신이 그때 나라를 지켜 잘 싸웠지만 그는 량반지주계급이었고 무관이었으므로 어디까지나 봉건왕권에 충성하며 량반지주계급을 위하여 싸웠다. 리순신이 그때에 지키려고 한 나라는 진정한 인민의 국가가 아니라 봉건통치배들의 이익을 위한 국가였다. 그렇기 때문에 리순신을 비롯한 당시 이름있는 명장들의 애국심은 계급적 및 시대적 제한성에서 벗어날수 없었다.²⁴⁾

22)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9」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pp. 6~7.

23) 「조선전사 9」, p. 278.

24) 「조선통사(상)」, p. 465.

이같은 평가는 개인의 위대성보다는 민족의 자주성 수호를 위해 용감히 싸운 인민들의 투쟁에 더 비중을 둔 때문이며 주체사관의 확립과 더불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김일성을 제외한 다른 영웅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에서 이순신은 외적의 침략에서 나라를 구한 애국명장이지만 남한에서와 같은 영웅은 아니다.²⁵⁾

3. 신사임당

북한은 우리 역사상 16세기가 여성들의 창작적 진출이 가장 강화되고 여류시가의 창작이 활발해진 때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여성들에게 무지와 굴욕만을 강요하는 봉건 유교교리에 대한 항거와 개성의 자유에 대한 지향”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⁶⁾ 신사임당은 이 시기에 조선화의 발전에 공헌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즉 “신사임당의 그림은 대상에 대한 정확한 묘사, 정교한 필치와 선명한 색채 등에서 생활을 사랑하고 다정다감하면서도 섬세한 여성화가로서의 개성이 뚜렷하였다. 신사임당은 이름난 여성화가였을 뿐 아니라 자식들도 잘 교양한 훌륭한 어머니였다.—신사임당은 현실주체작품을 창작하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봉건통치배들의 취미를 반영한 주관주의적인 먹그림에 비하여 진실하고 생동한 채색화를 그림으로써 사실주의적인 조선화를 발전시키는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고 서술되고 있다.²⁷⁾

요컨대 남한에서 신사임당이 화가로서보다는 훌륭한 어머니의 대명사로써 존경을 받고 있음에 비해 북한에서는 뛰어난 여성화가로서 주로 평가를 받고 있다.

25) 1998년에 증보판을 낸 「조선력사상식」은 이순신에 대해 “목숨바쳐 기울어지는 나라와 겨레의 운명을 떠받든 리순신장군의 애국심과 공적은 인민들 속에 길이길이 전해지고있으며 청사에 찬연히 빛나고있다--리순신장군의 애국심은 봉건국왕과 봉건국가에 대한 충군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임진조국전쟁승리에 크게 이바지한 애국명장이었다”고 기술, 이순신에 대한 1970년대 이래의 평가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주목된다. 「조선력사상식」, pp. 168~169.

26) 「조선전사 9」, p. 373.

27) 「조선력사강좌」, pp. 65~66.

4. 이황, 이이

뛰어난 대유학자로서 화폐에 등장할 정도로 남한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이황과 이이에 대해 북한은 매우 비판적이다. 특히 '理일원론'을 주장한 이황에 대해서는 “관념론적이며 반동적인 철학으로서 리조봉건통치배들의 사상적 도구로 복무하면서 당시 우리 인민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발전과 창조적활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었다”고 신랄히 비판한다. 따라서 북한에서 이황은 존경의 대상이기는커녕 저주의 대상일 뿐이다.

이이에 대해서도 비판은 여전하나 그의 철학이 유물론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으로써 이황보다는 정도가 덜하다. 「조선전사」는 이이의 사상이 가지고 있었던 결함들을 주로 지적하지만 개혁적 요소도 있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이이에 대해 북한은 “리이의 철학사상은 16세기 량반계급안에서 일정하게 진보적인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표한 사상으로서 그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시로서는 일정한 진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한다.²⁸⁾

IV. 근세의 인물

북한은 1860년대 이후부터 1925년까지를 근세로 규정하고, 이 시기를 구래의 봉건적 제관계를 청산하고 외세침략에 맞서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지키려는 '부르조아민족운동'의 단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역사발전에 있어서의 '부르조아민족운동'의 일정한 기여를 인정하지만 그 보다는 한계를 더욱 강조한다.

1. 김옥균 등의 개화파

갑신정변을 '1884년 부르조아혁명'으로 명명하고 있는 북한은 역사발전에 있어서 개화파의 일정한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개화파는

28) 「조선력사상식」, p. 173. 「조선전사 9」, pp. 346~351.

봉건관료 출신이었기 때문에 봉건세력과 타협하여 위로부터의 ‘부르조아혁명’을 수행하려고 했을 뿐, 반침략·반봉건운동의 기본동력인 ‘인민대중’의 혁명적 진출을 유도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김옥균은 “부패한 봉건통치제도를 청산하고 나라의 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노력한 1884년부르조아혁명의 지도자”이나 “봉건량반계급 출신으로서 당시 부르조아혁명의 기본력량인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층에 의거하지 못하였으며 소수의 개화파성원들과 변변치 못한 개화파의 무력을 기본으로 하고 침략적인 일본군대를 리용하여 혁명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 본질적 약점을 가지고있었다”고 지적된다.²⁹⁾

2. 유인석·홍범도 등 ‘반일의병투쟁’과 독립군운동을 주도한 인물

‘반일의병투쟁’은 의병장이었던 유생들의 계급적 제한성으로 인해 실패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홍범도 등이 간도지방을 중심으로 전개한 독립군운동에 대해서는 “자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며 대변하는 민족주의군대로서의 독립군이 광범한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다”는 것과 독립군 부대 사이에 반목과 질서가 난무하고 세력싸움이 격화되어 그 활동들이 분산된 한계를 지적한다.³⁰⁾ 그러나 ‘반일의병투쟁’과 독립군운동은 무장투쟁이었다는 점에서 여타 ‘부르조아민족운동’ 보다는 높게 평가하고 있다.

3. ‘애국문화운동’을 벌인 신채호, 박은식

남한에서 ‘애국계몽운동’으로 지칭하는 것을 북한에서는 ‘애국문화운동’으로 부르고 있다. ‘애국문화운동’의 본질적 결함과 제한성에 대해서는 “이 운동이 부르조아민족주의에 기초함으로써 애국정신과 선진지식을 보급하는 활동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해 대중을 혁명적인 투쟁으로 이끄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고 운동 상층 자체가 통일적인 역량으로 결속되지 못한

29)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력사사전 I」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p. 290.

30)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14」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pp. 214~222.

데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신채호, 박은식은 “일제강점후 매우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면서 인민들속에서 반일애국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언론출판활동을 정력적으로 벌인” 인물로서 ‘광심적인 민족주의자’로 평가된다.³¹⁾ 신채호, 박은식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주된 이유는 그들이 상해임정을 신랄히 비판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안중근

“조선이 낳은 애국렬사” “반일애국운동가이며 조선침략의 원흉 이또 히로부미를 처단한 애국청년”으로 안중근을 높이 평가한다.³²⁾ 그러나 그의 행동이 전체 인민의 단결된 투쟁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개인적 복수의 비조직적 투쟁으로 그쳤다는 한계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열혈청년들의 애국적거사는 국내외반동들에게 타격을 주고 인민들의 애국심과 반일투지를 키우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개인테로의 방법으로서는 국권을 회복할 수 없었다. 이러한 투쟁은 정확한 로선과 전략전술에 기초하여 반일민족해방운동이 령도될 때에만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었다.³³⁾

따라서 안중근은 김일성과 같은 “탁월한 령도자의 지도를 받지 못한 탓으로 하여 일제를 몰아내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정확한 투쟁방법을 알지 못한” 인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 인민들의 반일투쟁에 커다란 충동을 준”³⁴⁾ 애국자로 인정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이 일제치하의 초기 활동시기에 청소년들과 인민대중들 사이에 반일애국사상과 계급의식을 높이고 무장한 일제와의 투쟁은 안중근

31) 「조선전사 14」, p. 98, 219.

32) 「조선력사강좌」, p. 307.

33)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통사(하)」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p. 57.

34) 「조선력사상식」, p. 219.

처럼 혼자 비조직적인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전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쳐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라는 혁명연극을 창조, 공연하였다고 한다.³⁵⁾ 따라서 안중근의 애국적 행동은 북한에 널리 알려져 있다.

5. 유관순 및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3·1운동에 대해서 북한은 1960년대부터 '3·1인민봉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3·1운동과정에서 33인의 '부르조아민족주의자들'이 한 역할을 거부하고 3·1운동을 '인민들에 의한 봉기'라는 차원에서 설명하려는 데 기인한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손병희를 비롯한 민족대표 33인은 "일제의 탄압을 두려워 해 독립선언식 장소를 대화관으로 옮긴 '사이비'이며 요리점에서 떡자판을 벌린 자들이며 비겁하게 행동"³⁶⁾한 인물들로서 철저한 비판의 대상이다.

북한은 3·1운동의 발단으로는 평양에서의 독립만세 시위투쟁을 들고, 이것이 서울에서의 시위보다 앞섰다고 주장한다.³⁷⁾ 3·1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대한 서술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김일성의 외삼촌인 강진석과 아버지인 김형직의 역할이며, 서북지방의 활동 서술에 치중함으로써 「조선전사」는 유관순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중의 교양을 목적으로 발간한 「조선력사상식」 속의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는 가운데서도 유관순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재일 조총련의 교육을 위해 만든 「조선력사강좌」에서는 3·1운동을 설명하면서 유관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시위투쟁의 앞장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일제경찰에게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재판장에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일제의 죄행을 날날이 발가 놓았으며 감옥안에서도

35)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력사사전 II」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p. 1188.

36) 「조선력사강좌」, pp. 315~316, 「조선통사(하)」, p. 72.

37)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15」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p. 120.

굴함없이 싸우다가 옥사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³⁸⁾ 「조선전사」 등 북한의 주요 역사서에서는 유관순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조선력사강좌」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조총련을 대상으로 3·1운동을 탄압하는 일제의 잔학상을 강조하기 위한 때문인 듯하다.

6. 이승만, 김구 등 상해임정 요인

남한정부가 상해임정을 계승한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음에 반해, 북한은 상해임시정부가 ‘부르조아민족운동’ 상층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정치적 야욕을 위한 파벌적 속성과 사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민수탈을 위한 책동이었다고 비판한다.³⁹⁾ 「조선전사」는 상해임시정부의 활동을 ‘해외에서의 매국매족운동’이라는 제하에 다루고 있다.

상해에 망명하고 있던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1919년 2월초 <조선독립에 관한 요청서>를 만들어가지고 빠리에 대표를 보내는 것과 같은 부질없는 소란을 피웠다. 1919년 2월 미국에서는 만고역적 이승만과 정한경이 조선에 대한 미국의 ‘위임통치’를 청원하는 것과 같은 반역행위를 들어내 놓고 감행하고 있었다.⁴⁰⁾

위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은 이승만을 포함한 상해임정의 요인들과 당시 해외에 망명해 독립운동을 주도한 대부분의 지도자들을 모두 ‘매국매족’의 원흉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김구에 대해서는 해방후 그가 김일성을 흠모하였다고 하면서 비판의 강도를 완화한다.

김구는 1948년 5월 3일 경애하는 수령님께 “장군님, 조선이 정말 주인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을 이끄실 분은 장군님뿐이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장군님께 맡깁니다”라고 절절하게 말씀드렸다. 그는 서울에 돌아간 후 미제의 민족분열

38) 「조선력사강좌」, pp. 316~317.

39) 「조선전사 15」, pp. 217~224.

40)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근대조선역사」 (서울: 일송정, 1988), p. 315.

책동을 폭로하며 싸우다가—피살되었다. <반공>을 일삼아온 김구는 말년에 련공합작, 자주통일의 길에서 최후를 마쳤다.⁴¹⁾

북한은 김구에게 1990년 8월 <조국통일상>을 수여했다고 한다.

7. 안창호·조만식 등 일제치하의 민족지도자

북한은 안창호, 조만식 등이 1920년대에 주도한 ‘자급자족운동’, ‘물산장려운동’, ‘교육진흥운동’ 등에 대해 ‘민족개량주의’라고 비판한다. ‘민족개량주의’는 자산계급 출신인 민족운동 지도자들의 정치적 동요와 그들에 대한 일제의 매수정책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혁명과 반혁명사이에서 언제나 동요하는 립장에 서있는 부르조아민족주의자들”의 계급적 본성에 말미암은 정치적 동요와 ‘문화통치’의 허울을 쓴 일제의 정치적 모략의 산물로서 ‘자치’나 ‘실력양성’이니 ‘민족성의 개량’이니 하는 구호들이 양산되었다는 것이다.⁴²⁾

따라서 안창호는 대표적인 ‘친미사대주의자’이자 ‘민족개량주의자’로,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한 조만식 역시 ‘민족개량주의자’로 평가되면서 그들의 활동은 “우리 인민의 반제혁명의식을 마비시키며 반제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발전을 가로막기 위한 극악한 매국매족적인 것이었다”고 매도된다.⁴³⁾

V. 남북한간 인식 차이의 원인

귀순자 5명에게 분단이후의 인물이자 북한주민이 당연히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을 박정희를 제외한 세종대왕, 이순신, 김구, 안중근, 유관순, 신사임당, 광개토대왕, 안창호에 대해 북한에 있을 때 알고 있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이순신, 김구, 안중근, 안창호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으나 나머지 인물은 대체로 알지 못했다.

41) 「조선통사(하)」, pp. 362~363. 「조선력사상식」, p. 140.

42) 「조선전사 15」, pp. 207~215.

43) 「조선전사 14」, p. 212, 216, 218, 221.

남한 주민이 존경하는 인물로 선정된 위의 사람들 이외에 을지문덕, 연개소문, 김유신, 강감찬과 북한의 역사관을 감안하여 임궽정, 홍경래, 전봉준에 대한 인지여부를 물어보았는데, 임궽정, 전봉준은 알고 있었으나 여타 인물은 알지 못했다.

인지도가 높은 인물의 대부분은 근세 이후의 인물이었으며 이순신에 대해서는 당시 지배계층의 이익을 수호한 인물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이 특이했다. 뿐만 아니라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2위를 기록한 세종대왕을 알고 있었던 귀순자는 없었다.

한편 김구, 안창호는 김일성에 투항하고 그를 흠모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으며 북한에서 좋게 평가하는 인물로는 주로 안중근과 임궽정, 전봉준을 지적했다. 안중근과 임궽정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은 북한에서 이들이 영화화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이외의 인물에 관한 전기가 희귀하며 “김일성 부자를 제외하고 북한 주민들이 존경하거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인물이 있다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 ‘김일성 일가’라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그 이유는 임궽정, 홍경래, 전봉준, 김일성과 그의 일가에 대한 북한 역사서의 평가가 호의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역사서술에서 반침략투쟁과 함께 또 하나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것은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수탈의 강화와 그에 대한 인민들의 항쟁이다. 즉 주체사관에 따라 “국가권력을 쥔 봉건통치배”들과 봉건사회에서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한 채 그들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피지배인민’간의 대립을 역사발전의 기본모순으로 설정하여 농민전쟁·농민폭동·농민무장단의 투쟁·시위 등 반봉건투쟁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의 의의도 모두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반봉건투쟁에 대한 서술은 모든 투쟁의 의의를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찾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투쟁들이 봉건통치배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어 역사발전의 추진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인민들의 투쟁은 항상 미화되고 있으며, 봉건사회의 계급대립을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계급대립으로 단순화한 뒤, 지배층은 부패와 타락, 억압과 착취, 외침에서 비겁했다고 강조하는 반면 피지배층은 늘 선하고 옳은 것으로 묘사하

고 있다.⁴⁴⁾

그러므로 지배층에 대한 피지배층의 정의로운 항거를 조직하고 지휘한 인물들은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시애의 난'을 '함경도 농민전쟁'으로, '홍경래의 난'을 '평안도농민전쟁'으로, '동학란'을 '갑오농민전쟁'으로 명명하고, 농민전쟁을 지휘한 임격정, 홍경래, 전봉준 등을 높이 평가한다. 예컨대 전봉준은 "농민전쟁의 훌륭한 지도자였으며 적에게 굴하지 않는 굳은 투지를 가진 애국적인물"로 표현되고 있다.

조선시대의 이러한 인물 뿐 아니라 고려시대에 천민의 저항운동을 조직 지휘한 만적, 망이 등에 대한 평가도 같은 이유에서 호의적이다.

한편 북한은 초기의 모든 항일독립운동에 대해 '부르조아민족주의'에 의한 애국적인 투쟁으로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동시에 이 운동들은 운동을 주도한 상층의 계급적·사상적 제한성으로 인한 본질적인 약점이 있었다고 비판한다. 이와 같은 '부르조아민족운동'의 "본질적 약점들을 시급히 극복하고 조선민족 자체의 힘을 옹계 조직동원하여 민족해방투쟁을 자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된 것"은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이 소위 「조선국민회」를 조직했기 때문이라고 하여 그를 찬양한다.⁴⁵⁾ 김형직의 활동을 '부르조아민족운동'과 '사회주의운동'과의 연결고리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1920년대에 들어와 '민족해방운동'의 계급적 성격과 내용이 크게 바뀐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3·1운동 이전까지는 '민족해방운동'이 '부르조아민족주의'의 영향하에 진행되었으나 3·1운동 이후는 마르크스-레닌주의하에 진행되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1925년에는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었으나 불과 3년만에 해산되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탁월한 령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⁶⁾ '민족해방운동'을 올바른 노선하에 탁월하게 영도하여 결국 일제로부터 '민족해방'을 이룩한 인물이 김일성이라고 찬양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44) 고동환, "봉건사회의 농민항쟁 (2),"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인식 I」, p. 287.

45) 「조선전사 15」, p. 86.

46) 「조선전사 15」, pp. 240~244.

이와 같이 북한은 한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에 대한 평가에서 전체적으로 남한과 견해 차이가 뚜렷하다. 또한 체제의 특성상 역사적 인물에 대한 남한의 평가는 다양한 편차를 보일 수 있는 반면 북한의 평가는 획일적일 수밖에 없다. 남한에서 존경받고 있는 인물에 대한 북한의 평가가 다른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 따른다.

첫째는 북한 역사연구 및 교육의 정치성이다. 북한의 역사연구는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추진된 결과, 남한의 역사인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김일성은 역사연구의 존재이유에 대해 '인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여 그들로 하여금 혁명투쟁에 헌신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교시했다.⁴⁷⁾ 따라서 북한의 역사학은 단순한 학문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정치사상적 역할을 수행하며 역사연구는 역사학계의 문제라는 차원을 넘어 당 사상사업의 일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역사연구를 직접 당이 주도하고 있고 역사해석에도 당의 정치사상적 관점이 반영된다. 즉 북한의 역사연구는 실증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당이 규정한 목표에 따른 연구가 되어야 하며, 역사가의 과업도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역사가 되어야만 하는지를 제시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된다.⁴⁸⁾ 역사서는 객관적 사실에 충실하기 보다는 사회주의혁명의 필요성이라는 기준에 입각해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도 사회주의혁명의 관점에서 결정된다. 김정일은 "언제나 지난날의 역사적 인물들을 계급적 입장에서 서서 그들이 민족사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고 했다.⁴⁹⁾ 계급적 입장에서 민족사의 발전을 규정하기 때문에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남한과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둘째의 원인은 북한의 이른바 '주체사관'에 따른 인민대중 중심의 역사 기술과 교육이다. 북한의 역사관은 "인민대중은 사회력사의 주체"이며 "인류력

47)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때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468~469.

48) Yong-ho Choe, "History in North Korea: Its Role and Characteristics,"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 5, No. 1 (April 1976), p. 7.

49) 「조선력사상식」, p. 135.

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라는 것이다. 즉 인민대중이 자연의 구속과 모든 사회적 예측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다.⁵⁰⁾

이에 따라 북한에서의 우리 역사 서술은 어느 시대사이든 항상 “통치배들에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과 “외래침략세력에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 투쟁에 기여한 인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역사기술은 왕조 중심이 아니라 인민투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배계급인 왕과 귀족을 착취계급으로 규정하여 왕조 중심의 지배기구나 그 변천사를 서술대상에서 대체로 제외시키면서 왕과 관료들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은 역사서를 통해 뛰어난 치적을 남긴 왕이나 귀족을 알기 힘들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지배계급인 그들을 존경할 수 없게 된다.

셋째는 북한이 근현대사 중심의 역사교육을 하기 때문이다. 남한의 역사교육에서 근현대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적은 반면, 북한은 근현대사의 비율이 매우 높아 역사적 인물에 관한 남북한 주민의 인지도에서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북한이 우리 민족사 전체를 서술한 「조사전사」의 경우 33권 가운데 근현대편이 21권에 달하고,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기술한 것만도 7권에 이른다.

북한이 근현대사를 중시하는 것은 이른바 ‘민족해방’을 위한 ‘부르조아민족운동’의 필연적인 실패와 그것을 대체할 공산주의 운동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즉 근세의 ‘부르조아민족운동’은 그 계급적 제한성으로 인해 실패하게 되어 있었고, 따라서 공산주의 운동이 ‘민족해방’의 주류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이 논리는 ‘민족해방’에서 김일성의 영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여 그를 우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족통합은 이데올로기의 조정없이 불가능하며 그 이데올로기의 조정은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가장 적은 영역을 확대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된다. 이 때문에 역사학의 교류와 같은 남북한 간 사회문화 교류의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정당성을 갖는다.

50) 박일범,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2: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28~344.

그러나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비교적 적을 것 같은 분야에서도 남북한간 이질성은 강하다. 북한에서 역사학은 어느 분야 못지않게 이데올로기적 관점이 투영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1970년의 제5차 당대회에서 '주체의 승리'가 선언되고 주체사상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1974년에는 김정일의 주도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과업이 제시되기에 이른다. 그 결과 역사학계에서도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역사원리 즉 '주체사관'에 의해 한국사에 대한 종래의 인식을 재정리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유일사상체계로서 주체사상이 전면화되기 이전의 역사 연구들은 「조선전사」를 비롯한 후기의 연구들과는 뚜렷이 구별되며 전기 연구의 상당부분은 북한학계에 의해서 스스로 폐기되거나 수정되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도 북한에서 주체사관이 확립되어감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북한은 이순신을 영웅적으로 찬양했고 김유신과 김춘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였다. 예컨대 "김유신은 삼국의 통합을 위하여 활동한 신라의 애국명장이며 탁월한 정치 활동가였다.---김춘추는 능숙한 외교가였을 뿐만 아니라 현명한 정치가이기도 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나중에 당나라를 끌어들이 배족적 행위를 한 것으로 신랄히 비난되는 신라에 대한 시각도 부정적이지 않았다. 즉 "3국 통일을 위하여 시종 일관 투쟁해 오던 신라는 3국 간에 진전되는 정세를 옹계 분석한 기초 위에서 3국 중 그 어느 나라에나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있는 당 나라를 3국 통일 위업에 리용하는 대담한 정책을 내세웠다"⁵¹⁾고 평가했다.

그러나 1979년부터 간행되는 「조선전사」에 오면 애국명장의 대명사인 이순신에 대한 찬양마저 약해지고 그의 시대적, 계급적 제한성에 대한 언급이 강화되는 것이다.

VI. 결 론

북한의 역사학은 그 역할과 성격 등에 있어 우리와 매우 상이하다. 그

51) 김일성종합대학 역사연구소 편, 「조선의 명인(상)」, (평양: 조선청년사, 1963), pp. 51~59.

결과 거래의 역사에 대한 해석이나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 상당한 거리가 존재한다.

남북한 주민이 공통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주요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가 뚜렷이 상반된다. 남북한 주민이 서로 박정희와 김일성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과 '민족의 역적'으로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은 통일 이후 공동의 역사 인식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분단현실이 빚어낸 이런 '역사의 분단'은 민족의 숙원인 통일과업을 풀어나감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민족사와 존경하는 인물에 관한 남북한 주민의 인식차이는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불일치로 확산될 수 있으며 통일 후 민족공동체 형성에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남북한의 이념 및 정통성 기반의 상이성에 기인한다. 일인지배체제인 북한에서는 민족사에서 김일성 이외의 특정한 인물의 역할을 크게 강조할 수 없으며 특히 근현대사의 인물일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는 한국 근현대사의 주된 줄기를 애국계몽운동과 상해임정으로 보느냐, 아니면 반봉건농민항쟁과 항일무장투쟁으로 보느냐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상해임정 요인에 대한 평가가 극히 부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 체제와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할 수밖에 없는 역사인식의 차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왜 다르게 나타났고 그러한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족사와 존경하는 인물에 관한 남북한 주민의 인식차이를 단시일내에 일소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역사인식상 공통분모를 찾아내어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에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상반되는 평가를 내리거나 비중을 달리하여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남북한 주민이 공통적으로 존경하는 안중근, 을지문덕, 신사임당, 신채호와 같은 인물들을 부각시킨 프로그램의 개발이 역사인식 동질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남북한 역사인식의 차이 실태와 그 원인에 관한 보다 구체적

이고 상세한 연구를 통해서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공통의 역사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역사인식 내용과 그 이유를 남한 주민의 통일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분단 50년간 남북한 사이에 역사자료 및 전문학자간의 교류가 사실상 전무한 가운데 이루어진 남북한의 역사연구가 이질성이 강한 것은 당연하다. 이질성의 해소는 남북 어느 한 쪽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양자간의 진지한 만남과 공동연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남북 정상 회담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남북교류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요즘 남북한 모두에서 추앙받는 인물에 관한 자료와 연구성과들을 서로 교환하고 민족사의 생생한 현장을 공동으로 답사하며 연구해야 할 것이다.